

[성 구]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139:14)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229-1
우편번호: 12736
발행인: 채희근
편집인: 윤성천
전화: 0502-604-0691
팩 스: 0303-0944-2936

제43회 계신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 총회의 “제43회 정기총회”가 2022년 9월 20일(화) 송탄북부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선교사 노대영 목사의 기도와 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중심으로 한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초대 교회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힘쓰자'라고 은혜를 나누며 총회를 시작하였다.

회원 점명은 출석부를 통해 총회원 235명 중 173명이 출석하여 개회 성수가 되므로 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이후 목사 안수식이 시작되었는데, 장정에 선교사의 통역으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제니스, 마를렌, 까날, 마나스 선교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엠슬라바 선교사가, 미주 노회에서는 김현성 강도사가, 명륜교회 추시형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임원 선출을 통해서 총회장에 채희근 목사, 총무에 김정경 목사, 서기에 곽동삭 목사, 부서기에 남성호 목사, 회계에 박천수 장로, 부회계에 심용보 장로가 선출되어 새로운 총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신임 총회장 채희근 목사의 사회로 찬송

가 450장 1절 찬양 후 조영일 목사의 기도로 제2부 회의를 시작하였다. 각부 보고 및 각 노회 보고와 미주 노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했다. 각 노회 및 총회 상임위원의견에 대해서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로 그대로 하기로 하고, 헌법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원로 목사 자격 및 추대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은 현행과 같이 하기로 했다. 총회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게 하고, 2년 후에 입후보할 수 있게 했다. 은급비를 30년 근속일 경우 기존 2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강도사, 전도사, 여전도사 은급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광역 노회 헌의안은 부결되어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노회 회 목사의 축도로 총회를 은혜롭게 마쳤다.

금번 총회는 여러 면에서 뜻깊은 총회가 되었다.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본과 미국의 선교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계신 총회가 하나로 뭉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참 부뚱했다. 송탄북부교회에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주어 총회원들이 기쁨으로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기사 이정행 목사
사진 이나라 목사

신임 총회장 인사말



채희근 목사
(도봉교회 시무)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
제4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종이 한 해 동안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울러서 모든 총회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는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즉 복음운동, 구원운동 및 교회운동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전염병과 기근, 전쟁과 지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등 만물의 마지막의 징조들이 과거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인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낳게 하였습니다. 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유튜브나 줌을 통한 온라인 예배에도 이제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우리 총회도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시대에 반기독교인 시류와 운동에 야합하거나 함몰되지 아니하고, 깊은 기도와 말씀에 착념하여 우리의 대적과 힘써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곧 준공 예정인 총회사무실은 우리 모든 총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총회장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중점을 두고 한 회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총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계약신학연구원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역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미 자립 교회를 돕는 일과 선교지 교회들과의 교류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목회자의 재충전과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수양회, 사경회 및 기도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총회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총회 상임위원회에 상정 및 의논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제43회 계신총회 신임원 소개

			
총무 김정경 목사 우신교회	총회장 채희근 목사 도봉교회	서기 곽동삭 목사 서광교회	
			
부서기 남성호 목사 평강교회	서무서기 석진오 목사 본동교회	회계 박천수 장로 상대원교회	부회계 심용보 장로 영화교회

계약신학연구원

2022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



2022학년도 2학기 개강 예배가 9월 5일(월) 오후 6시에 명륜교회에서 원장 박세덕 목사의 사회로 있었다. 박세덕 목사의 기도에 이어 강도를 맡은 남성호 목사는 빌립보서 2장 1-11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강론 후에 남성호 목사의 축도로 개강예배를 마쳤다.

기사 김광원 목사

설교



안근신 목사
예수사랑교회

정직하게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

잠 11:1-4

지나친 탐욕에서 비롯 됩니다. 여러 선지자도 그러한 악행을 엄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겔 45:10, 암8:5, 미6:11). 본문 말씀에서도 전도자는 저울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전도서 7:29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직히 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1) 모든 인생에게 정직한 추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즉 정직한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신25:15)”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당하게 저울을 속여 부를 축적하려는 자를 가증히 여기십니다(신 25:16).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영적 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해서 일상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처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업을 비롯해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행할 때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영혼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2) 믿는 자들은 공의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여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양심을 속이는 범죄를 행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성도는 세상의 것은 다 헛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좇아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흠 없고 순전한 자세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 그 사람을 생

명길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직하셔서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하게 되고 속이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직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직함이 없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1:1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 1:17)라고 책망하셨는데 그들의 행위는 정직함, 진실함이 없는 위선과 거짓된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정직하지 못한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말1장). 정직하지 못한 그들은 온전한 십일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말 3:8~10).

3.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1)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 11:7에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열굴을 뵈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의롭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며 의를 세워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시15:2에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2) 그 장막이 복을 받습니다.

잠 14:11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장구하지 못하고 결국 쇠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편이므로 형통한 길

로 인도하십니다.

3)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 33:15에 죄인과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높은 곳, 즉 신령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데 있어서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남을 속이고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 삶을 뛰어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었고 결국 버림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간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그의 마음에 긍정, 성실, 진실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정의 식구들, 부모 형제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보게 됩니다. 요셉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 욥,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공무원에게 어느 회사 사장 한 사람이 잘 봐달라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봉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이 잘 되도록 살피 드릴테니 걱정 마시고 돌아 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해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논 단



구왕서 목사
광흥교회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약 또는 협정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셨고, 인간이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실 것인가를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신이시므로 인간을 향해 아무 약속도 하실 근본적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언약의 의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뿐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약속이라도 한번 정한 다음에는 폐하거나 더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변하거나 헛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약속하신 것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맹세한 것을 변치 못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불변의 법적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언약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은사들을 사용하여 그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 비하여, 후자는 성령의 거듭나고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통해서만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언약은 옛언약과 새언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언약의 의미를 상기한대로 파악한다면 각 언약에는 언약의 당사자 및 그 언약의 내용, 특징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언약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 그 의미 및 특징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1. 행위언약

행위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다. 이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담의 순종, 즉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아담은 그것을 순종할 의무가 있었다. 이 명령과 의무는 단순한 상명하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아담) 사이의 약속의 결과이다. 즉 행위언약은 아담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편무언약이 아닌 쌍무언약이었다. 따라서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창 2:16-17).

행위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입장에서

다루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이 실행해야 하는 조건들을 설정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행위언약에서 그 조건은 아담의 완전한 순종이며, 그 조건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생과 복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던 아담은 스스로 행위언약을 파기시켰다. 그 결과 아담에게는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형벌인 동시에(롬 6:23),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에 따른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이행이다(창 2:17). 선악과에 관하여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안에는 불순종을 벌하셨다는 약속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벌을 내리신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를 잃게 되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선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롬 5:12-21)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행위언약은 폐기되었으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행위언약의 현재 유효성에 대하여 이병규 목사는 겔 18:4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선악과를 통해 나타난 행위 계약(창 2:17)은 그리스도께서 대행하신 의미에서는 폐기되었으나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범죄하면 벌 받는다. 이것은 행위 계약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증거이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나 구원 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키면(행위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언약’을 구원에 한정을 지어 생각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의 행위로서는 더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구원에 관한’ 행위언약은 폐기된 것이다. 그렇지만 ‘언약’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 파악한다면 그 유효성에 대하여 상기한 이병규 목사의 의견에 동의하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2. 은혜언약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말미암아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은혜언약이라고 불린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3문). 이 언약을 은혜언약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시행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죄인들의 삶 속에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은혜언약은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범했으나 택함을 받은 죄인 사이에 맺어진 은혜로운 협정으로서 이 언약 안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이해

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며, 죄인은 믿음으로써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혜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은혜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이다. 이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의 조건을 다 성취하시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라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신다(히 8:6; 딤후 2:5; 히 9:15). 은혜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성립되었으며, 이 언약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뿐이다(롬 3:24; 마 26:28).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 즉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보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요 3:16).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믿음으로써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한다(요 15:1-5).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거듭 강조되었다(창 17:7; 렘 31:33; 고후 6:16; 계 21:3). 은혜언약은 행위언약과는 달리 영원하고 파기될 수 없는 언약으로서, 이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사 54:10).

은혜언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적인 측면이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규례, 즉 할례를 주신 것을 가리킨다(창 17:7-14; 롬 4:11). 은혜언약은 순수한 객관적 협약으로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언약의 조건(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응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은혜언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된다.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진실히 믿는 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녀, 법적으로는 은혜언약에 들어왔으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스마엘, 에서 등)이다. 은혜언약의 두 번째 측면은 생명적인 면이다. 이것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제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은혜언약의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 언약의 구체적인 규례들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아담의 시대에는 창 3:15에 기록된 소위 원복음에 관한 약속을 통하여 은혜언약이 처음으로 암시되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축옷(창 3:21)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예표되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다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창 9:8).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다(창 9:13). 또한 방주를 통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은혜언약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암시하시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하여 정식으로 맺어주셨다(창 17:1-2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2:2-3; 15:4-5; 17:4-8). 이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며(창 17:7),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였다(창 15:6).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민족적이며 세계적이다(창 22:18). 또한 이 언약은 물질적인 면(창 17:8)을 지닌 동시에 영적(롬 4:16; 갈 3:39)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책에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율법들은 그리스도를 예표(의식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시민법)하고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를 나타낸다. 즉 모세와 맺은 은혜언약은 이전과 동일하면서 율법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율법으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 유지된다.

이러한 은혜언약은 신약시대에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롬 4:3,9,11,17; 갈 3:1-8, 29).

3. 새 언약

렘 31:31-34에는 “새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렇다면 새언약과 대조해서 옛언약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과의 언약을 신약에서 옛언약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모세 아래서의 언약, 즉 시내산에서의 언약(출 19-24)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언약에 의해 대치될(눅 22:20; 고전 11:25; 고후 3:6; 히 8:8,13; 9:15; 12:24) 옛언약이라고 불린다(고후 3:14; 히 8:6,13).

모세의 언약이나 그 안에 있는 율법들 자체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율법 자체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언약은 히 8:6-13에 인용된 대로 렘 31:31-34의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에서 훨씬 더 나은 것이다.

그렇다면 새언약에서 ‘새(new)’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 대하여 새언약신학자(new covenant theologian)는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라고 주장하며, 반면 옛언약은 전혀 새롭지 않고 단지 이전 것을 회복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두 해석은 모두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새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이미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전에 세운 언약과 연관이 있는 점에서 전자의 주장은 옳지 않으며, 렘 31:32에 “같지 아니할 것은”이라고 했으

므로 후자의 주장도 옳지 않은 것이다. 새언약에서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우신 언약을 확실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시며 확실하게 하신다.

그런데 렘 31:33下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므로 언약을 파기하였는데, 그 죄는 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렘 2:8) ② 죄를 마음 판에 새겼고(렘 17:1) ③ 우상숭배를 한 것(렘 16:18)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셨다(렘 6:20).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번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므로 역사적으로는 각각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정복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렘 31:3-4). 새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고 대답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새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들은 영원하며(창 9:16; 17:7) 연속성이 있다(신 29:1; 레 19:18. 요일 2:7-8).

새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를 마음 판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셨다(렘 31:33). 하나님께서

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 새언약과는 차이점이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은 외부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주셨다(출 31:18). 반면에 새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중생을 통한 내적인 변화, 즉 영적인 변화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언약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언약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롬 10:12). 새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오늘날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자들이다(롬 2:28-29).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언약의 결과는 여호와를 알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알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어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렘 31:34).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령께서 중생시키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새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히 7:27; 9:11-12; 10:10). 새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중생시키셔서 새생명을 얻게 되었다. 즉 새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새언약의 중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자들이 새언약에 참여한 자들이다(눅 22:20; 고전 11:25).

결론

행위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즉 인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영생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행위언약은 인간(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고, 이후로는 자유의지를 잃어 인간의 행위로써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은혜언약을 맺어주셨다. 은혜언약은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 은혜언약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옛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체결하신 것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로 인하여 파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언약을 다시 주셨다. 새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예수님은 중보자 되시며 성령께서 중생시켜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새언약은 이

전과는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언약도 아니고 단지 이전 것을 회복한 것도 아니다. 이전에 세우신 언약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시며 확실하게 하신다는 의미로서의 '새'언약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언약을 세우심으로 그에 참여하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방법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뿐이다. 따라서 새언약은 은혜 안에 있다.

남자 목사 후보생 수시 모집

성경연구과정 / 신학연구과정

여자는 신학연구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으며 공부를 마친 후 여전도사로 일할 수 있음

특전

- 등록금 100% 장학금 지급
- 총회 고시 후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석사 과정 입학 가능
 - 만 55세 이하 남자로 본교 신학연구과정을 마친 자
 - 70%의 장학금 지원함(강학생 선정은 교수회에서 정함)

문의전화: 010-5779-2494(김광원 목사)
웹 주소: kveyak.co.kr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총회

계약신학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3길 6(혜화로타리 근처)

제1회 청년연합수련회



2022년 5월부터 완화된 방역수칙을 따라 상임위에서 "청년연합수련회"를 교단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여 8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하이레저 토브랜드"에서 13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신앙을 회복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번 "청년연합수련회"를 통해 교단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교회 간의 연합을 통하여 신앙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게 하고자 하였다.

연합청년회를 주관하는 교육부에서는 가급적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려고 노력하였고 참여한 교회 담당 사역자들이 강의를 맡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청년들은 "청년연합수련회 준비모임"을 갖고 제반사항을 착실히 준비하여 연합청년수련회를 문제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연합청년수련회에 말씀과 강의를

맡은 분은 다음과 같다. 개회 예배에 총회장 이용주 목사, 2030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정승환 목사, 장로회 격려의 시간에 최삼균 장로, 정채목 장로, 금요새벽예배에 천은준 목사, 기독교인의 우울증 치료에 이정행 목사, 기독교인의 연애와 결혼에 윤민호 목사, 토요일새벽예배에 한영광 목사, 폐회예배에 윤성천 목사이다.

8월 17일에는 교육부 담당자들과 청년부 담당 교역자들이 모여 연합청년수련회 평가회를 갖고 차기 수련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 총회 임원의 지원과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주신 교회들과 장로회와 이번 수련회를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사 윤성천 목사
사진 유준광 강도사

계신총회 8월 사경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 총회 8월 사경회가 명륜교회(박세덕 목사 시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3길 6)에서 2022년 8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18일 목요일 오전 예배까지 대면 예배로 진행됐다. 총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사경회 말씀을 듣고 연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사경회 첫날 개회 예배는 오후 2시부터 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골로새서 1장 설교로 시작하였다.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총 9명의 강사가 골로새서(이용주, 정양근, 박세덕, 박항우)와 데살로니가 전서(김성진, 이창욱, 유영길, 채희근, 고석남)를 한 장씩 설교하였고, 이에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

사회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첫날

530여 명의 많은 성도가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경회를 대면예배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이번 8월 사경회는 대면예배를 드리며 교역자와 성도 간에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었다. 헌금 작성 시간에는 사경회 연보와 그 동안 총회사무실이 없어 총회 사무실을 여러 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총회 사무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번에 건축을 위한 연보를 작성하였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배 장소와 식사(아침, 점심)를 제공하고, 교역자와 성도들이 머물 숙소를 제공하며, 편의 시설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편안함과 본 교회의 헌신적인 봉사로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한 명륜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사 윤석현 목사
사진 이나라 목사